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5 주차 (8:12-8:30)

(2015년 5월 3일 - 2015년 5월 9일)

(제3권 15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5 월 3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일)

### 오늘의 본문 (요 8:12~20)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앎이 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9.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 원문해석하기

- (1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그가] 말씀하시길,  
(Πάντων οὖν αὐτοῖς ἐλάλησεν ὁ Ἰησοῦς λέγων·)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ἐγὼ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ὁ ἀκολουθῶν ἐμοὶ οὐ μὴ περιπατήσει ἐν τῇ σκοτίᾳ·)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ἀλλ' ἔξει τὸ φῶς τῆς ζωῆς·)
- (13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ῶ οἱ Φαρισαῖοι·)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σὺ περὶ σεαυτοῦ μαρτυρεῖς·)  
[따라서] 당신의 증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ἡ μαρτυρία σου οὐκ ἔστιν ἀληθής·)
-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비록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증거할지라도 (κἂν ἐγὼ μαρτυρῶ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의 증거는 진실됩니다 (ἀληθής ἐστιν ἡ μαρτυρία μου·)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ἶδα πόθεν ἦλθον καὶ ποῦ ὑπάγω·)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ὁμοίως δὲ οὐκ οἴδατε πόθεν ἔρχομαι ἢ ποῦ ὑπάγω·)
- (15절) 당신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ὁμοίως κατὰ τὴν σάρκα κρίνετε·)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ἐγὼ οὐ κρίνω οὐδένα·)

- (16절) 만약 내가 판단을 한다면 (καὶ ἐὰν κρίνω δὲ ἐγώ,  
나의 그 판단은 진실됩니다 (ἢ κρίσις ἡ ἐμὴ ἀληθινή ἐστιν.)  
왜냐하면 나는 홀로가 아니고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όνος οὐκ εἰμί, ἀλλ' ἐγὼ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 (17절) 당신들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καὶ ἐν τῷ νόμῳ δὲ τῷ ὑμετέρῳ γέγραπται)  
두 사람의 증거는 진실되다고 (ὅτι δύο ἀνθρώπων ἡ μαρτυρία ἀληθής ἐστιν.)
- (18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합니다 (ἐγὼ εἰμι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역시 나를 증거하십니다 (καὶ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 (19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ποῦ ἐστιν ὁ πατήρ σου·)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당신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οὔτε ἐμὲ οἴδατε οὔτε τὸν πατέρα μου·)  
만약 나를 알았었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εἰ ἐμὲ ᾔδειτε,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ἂν ᾔδειτε.)
- (20절) 그가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금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ἐλάλησεν ἐν τῷ γαζοφυλακίῳ διδάσκων ἐν τῷ ἱερῷ·)  
그리고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ίσεν αὐτόν·)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πω ἐληλύθει ἡ ὥρα αὐτοῦ.)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 절을 읽으십시오. 12 절은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앞선 이야기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후대에 와서 이 부분에 삽입된 것임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12 절은 7 장 52 절에 연결되는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용상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7 장 52 절은 공회원들 자기 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 장 12 절은 종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기 직전인 7 장 37 절에서 44 절 사이 어디엔가 들어가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 구절들 중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시작되는 부분이 40 절부터인 것으로 보아 8 장 12 절은 7 장 39 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D.A. Carson). 이처럼 성경의 맥을 제대로 짚어가며 읽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적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에고 에이미’(ἐγὼ εἰμι (번역하면 I am...)) 라는 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포는 6 장 35 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오면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8장 12 절도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 절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한 내용을 예수님 본인이 직접 선언하심으로써 요한의 말을 확증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 장 서두에서 로고스(말씀)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요 1:4 참조).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빛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 절~22 절을 보겠습니다.

“<sup>21</sup>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sup>22</sup>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출13:21-22).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나올 때 그들은 바로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밤낮없이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비옥한 땅을 나와서 황량한 사막 지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제대로 몰랐고, 낮이면 건디기 힘든 더위와 밤이면 찾아오는 오싹한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스한 온기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빛’은 유대인들에게 삶의 좌표이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빛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시 27:1).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잠 6:2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취었도다”(합 3:3-4).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유대인들에게 빛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고(시 17:1),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침이며(시 119:105, 잠 6:23),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합 3:3-4)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빛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이며 구원의 주체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사야서에는 종으로 오시는 어떤 분이 이방의 빛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sup>6</sup>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5-6).

“<sup>9</sup>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sup>20</sup>다시는 네 해가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사 60:19-20).

결국 예수님은 빛이셨고, 빛으로 오셨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계시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한 종으로 오셔서 수치스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우리는 어떠한가요? 빛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빛나고 화려한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참된 빛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천한 종이 되어 죽는 것이며, 밝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찾아가 그 어둠을 환히 비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나의 증거는 진실됩니다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12~20)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앎이 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9.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 원문해석하기

- (1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길,  
(Πάνιν οὖν αὐτοῖς ἐλάλησεν ὁ Ἰησοῦς λέγων·)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ἐγὼ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ὁ ἀκολουθῶν ἐμοὶ οὐ μὴ περιπατήσει ἐν τῇ σκοτίᾳ·)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ἀλλ' ἔξει τὸ φῶς τῆς ζωῆς·)
- (13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ῶ οἱ Φαρισαῖοι·)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σὺ περὶ σεαυτοῦ μαρτυρεῖς·)  
[따라서] 당신의 증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ἡ μαρτυρία σου οὐκ ἔστιν ἀληθής·)
-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비록 내가 스스로에 대해 증거할지라도 (κἂν ἐγὼ μαρτυρῶ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의 증거는 진실됩니다 (ἀληθής ἐστιν ἡ μαρτυρία μου·)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ἶδα πόθεν ἦλθον καὶ ποῦ ὑπάγω·)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ὁμοίως δὲ οὐκ οἴδατε πόθεν ἔρχομαι ἢ ποῦ ὑπάγω·)
- (15절) 당신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ὁμοίως κατὰ τὴν σάρκα κρίνετε·)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ἐγὼ οὐ κρίνω οὐδένα·)

- (16절) 만약 내가 판단을 한다면 (καὶ ἐὰν κρίνω δὲ ἐγώ,  
 나의 그 판단은 진실됩니다 (ἡ κρίσις ἡ ἐμὴ ἀληθινή ἐστιν.)  
 왜냐하면 나는 홀로가 아니고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όνος οὐκ εἰμί, ἀλλ' ἐγὼ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 (17절) 당신들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καὶ ἐν τῷ νόμῳ δὲ τῷ ὑμετέρῳ γέγραπται)  
 두 사람의 증거는 진실되다고 (ὅτι δύο ἀνθρώπων ἡ μαρτυρία ἀληθής ἐστιν.)
- (18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합니다 (ἐγὼ εἰμι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역시 나를 증거하십니다 (καὶ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 (19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ποῦ ἐστὶν ὁ πατήρ σου·)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당신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οὔτε ἐμὲ οἴδατε οὔτε τὸν πατέρα μου·)  
 만약 나를 알았었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εἰ ἐμὲ ᾔδειτε,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ἂν ᾔδειτε.)
- (20절) 그가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금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ἐλάλησεν ἐν τῷ γαζοφυλακίῳ διδάσκων ἐν τῷ ἱερῷ·)  
 그리고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ίσεν αὐτόν·)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πω ἐληλύθει ἡ ὥρα αὐτοῦ.)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 절을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빛은 곧 하나님을 의미했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녀를 의미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자기만 따르면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영생을 주는 주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빛=생명’으로 연결되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선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선언한 장소가 성전 뜰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동쪽 문을 통해 들어가면 여인의 뜰(The Court of Women)이 있는데 이곳 네 모퉁이에는 성전 마당을 비추는 거대한 네 개의 램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그 곳에 불을 밝히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그러한 풍습을 보고 그것에 빗대어 말씀하셨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선언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9 장부터 이어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와 관련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하신 후 빛을 잃은 한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빛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9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13 절을 읽으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도발적인 선언에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곧바로 반박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따라서] 당신의 증거는 진실되지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옳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는 본인 이 아닌 제3자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주장한다고 그 사람 자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또는 천사들에나 해당되는 말인 ‘빛’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여 자신을 ‘빛’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의 말을 아무 증거도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자체가 오히려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 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임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논증을 통해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옳은 선언이 되는지 알아가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14-18 절을 읽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반론에 대해 예수님이 변론하십니다.

“비록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증거할지라도 나의 증거는 진실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 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판단을 한다면, 나의 그 판단은 진실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홀로가 아니고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증거는 진실되다고, 당신들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역시 나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의 증거는 스스로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임을 그 전에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5 장 30 절~39 절을 보겠습니다.

“<sup>30</sup>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sup>31</sup>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sup>32</sup>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sup>33</sup>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sup>34</sup>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sup>35</sup> 요한은 썬더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sup>36</sup>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sup>37</sup>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sup>38</sup>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sup>39</sup>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0-39).

모세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안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 장 15 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신 19:15).

예수님도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질 때에 이 모세 율법에 따를 것을 권고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 장 15~16 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마 18:15-16)

이렇듯 성경에 따르면 당사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입증하는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 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에게 친히 증거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들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선언을 우리는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12~20)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앎이 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9.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 원문해석하기

- (1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그가] 말씀하시길,  
(Πάντα οὖν αὐτοῖς ἐλάλησεν ὁ Ἰησοῦς λέγων·)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ἐγὼ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ὁ ἀκολουθῶν ἐμοὶ οὐ μὴ περιπατήσει ἐν τῇ σκοτίᾳ·)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ἀλλ' ἔξει τὸ φῶς τῆς ζωῆς·)
- (13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ῶ οἱ Φαρισαῖοι·)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σὺ περὶ σεαυτοῦ μαρτυρεῖς·)  
[따라서] 당신의 증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ἡ μαρτυρία σου οὐκ ἔστιν ἀληθής·)
-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비록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증거할지라도 (κἂν ἐγὼ μαρτυρῶ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의 증거는 진실됩니다 (ἀληθής ἐστιν ἡ μαρτυρία μου·)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ἶδα πόθεν ἦλθον καὶ ποῦ ὑπάγω·)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ὁμοίως δὲ οὐκ οἴδατε πόθεν ἔρχομαι ἢ ποῦ ὑπάγω·)
- (15절) 당신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ὁμοίως κατὰ τὴν σάρκα κρίνετε·)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ἐγὼ οὐ κρίνω οὐδένα·)

- (16절) 만약 내가 판단을 한다면 (καὶ ἐὰν κρίνω δὲ ἐγώ,  
나의 그 판단은 진실됩니다 (ἢ κρίσις ἡ ἐμὴ ἀληθινή ἐστιν.)  
왜냐하면 나는 홀로가 아니고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όνος οὐκ εἰμί, ἀλλ' ἐγὼ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 (17절) 당신들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καὶ ἐν τῷ νόμῳ δὲ τῷ ὑμετέρῳ γέγραπται)  
두 사람의 증거는 진실되다고 (ὅτι δύο ἀνθρώπων ἡ μαρτυρία ἀληθής ἐστιν.)
- (18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합니다 (ἐγὼ εἰμι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역시 나를 증거하십니다 (καὶ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 (19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ποῦ ἐστιν ὁ πατήρ σου·)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당신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οὔτε ἐμὲ οἴδατε οὔτε τὸν πατέρα μου·)  
만약 나를 알았었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εἰ ἐμὲ ᾔδειτε,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ἂν ᾔδειτε.)
- (20절) 그가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금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ἐλάλησεν ἐν τῷ γαζοφυλακίῳ διδάσκων ἐν τῷ ἱερῷ·)  
그리고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ίσεν αὐτόν·)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πω ἐληλύθει ἡ ὥρα αὐτοῦ.)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다시 14 절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증거할지라도 그 증거는 참되  
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 너무 황당하고 억지 주장처럼 들립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오  
디로 가시는지 안다는 사실이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이  
참되다는 걸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은 7장 14 절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  
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이 계속 스스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7장 27~29 절, 33~35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sup>27</sup>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sup>28</sup>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  
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  
하나 <sup>29</sup>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요 7:27~29).

“<sup>33</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sup>34</sup> 너희  
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sup>35</sup>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  
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터인가 <sup>36</sup>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요 7:27-36).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미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율법에 위배되는 것들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맞는 말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농담이나 허튼 소리 정도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 꼼꼼하게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꼬투리만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바꾸어 해석할 때 진리는 왜곡되고 그리스도는 그 저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간 위대한 성인 중의 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드 등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당신이 믿는 복음과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1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ὁμεις κατὰ τὴν σάρκα κρίνετε, 후메이스 카타 텐 사르카 크리네테)”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알팍한 지식으로 과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7장 24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요 7:24).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교회 다닌 했수가 어떠한지, 현금 생활을 얼마나 잘 하는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가진 은사가 어느 정도인지 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판단은 그가 삶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내세우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인간들이 쌓은 업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후 5:16).

오늘 하루 당신이 신앙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과연 참된 신앙의 모습이 맞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나의 판단은 참되다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12~20)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앎이 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9.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 원문해석하기

- (1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길,  
(Πάνιν οὖν αὐτοῖς ἐλάλησεν ὁ Ἰησοῦς λέγων·)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ἐγὼ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ὁ ἀκολουθῶν ἐμοὶ οὐ μὴ περιπατήσει ἐν τῇ σκοτίᾳ·)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ἀλλ' ἔξει τὸ φῶς τῆς ζωῆς·)
- (13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ῶ οἱ Φαρισαῖοι·)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σὺ περὶ σεαυτοῦ μαρτυρεῖς·)  
[따라서] 당신의 증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ἡ μαρτυρία σου οὐκ ἔστιν ἀληθής·)
-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비록 내가 스스로에 대해 증거할지라도 (κἂν ἐγὼ μαρτυρῶ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의 증거는 진실됩니다 (ἀληθής ἐστιν ἡ μαρτυρία μου·)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ἶδα πόθεν ἦλθον καὶ ποῦ ὑπάγω·)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ὁμοίως δὲ οὐκ οἴδατε πόθεν ἔρχομαι ἢ ποῦ ὑπάγω·)
- (15절) 당신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ὁμοίως κατὰ τὴν σάρκα κρίνετε·)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ἐγὼ οὐ κρίνω οὐδένα·)

- (16절) 만약 내가 판단을 한다면 (καὶ ἐὰν κρίνω δὲ ἐγώ,  
나의 그 판단은 진실됩니다 (ἢ κρίσις ἡ ἐμὴ ἀληθινή ἐστιν.)  
왜냐하면 나는 홀로가 아니고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όνος οὐκ εἰμί, ἀλλ' ἐγὼ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 (17절) 당신들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καὶ ἐν τῷ νόμῳ δὲ τῷ ὑμετέρῳ γέγραπται)  
두 사람의 증거는 진실되다고 (ὅτι δύο ἀνθρώπων ἡ μαρτυρία ἀληθής ἐστιν.)
- (18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합니다 (ἐγὼ εἰμι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역시 나를 증거하십니다 (καὶ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 (19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ποῦ ἐστιν ὁ πατήρ σου·)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당신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οὔτε ἐμὲ οἴδατε οὔτε τὸν πατέρα μου·)  
만약 나를 알았었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εἰ ἐμὲ ᾔδειτε,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ἂν ᾔδειτε.)
- (20절) 그가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금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ἐλάλησεν ἐν τῷ γαζοφυλακίῳ διδάσκων ἐν τῷ ἱερῷ·)  
그리고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ίσεν αὐτόν·)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πω ἐληλύθει ἡ ὥρα αὐτοῦ.)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5절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또는 ‘그 누구의 흠도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찾아내어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 15절에서의 말씀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들립니다. 마치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도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5:27).

따라서 얼핏 보면 15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 그리고 5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판단(또는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요한복음 5장 26~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해의 실마리가 들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sup>27</sup>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sup>28</sup>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sup>29</sup>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sup>30</sup>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5:26-30).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의 권세는 자신이 직접 심판을 하는 적극적 의미의 권세라기 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나마도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바로 사람들이 무가치한 일을 행하는 것, 자신들의 힘으로 애써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는 목인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오히려 가혹한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일념으로 계속함으로써 힘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 10:2-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평 불만은 없나요? 남들은 빈둥빈둥 놀고 있고 나만 괜히 고생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요? 그런 상대방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없었나요? 만약 있다면 가장 최근에 남들을 판단했을 때를 생각해 보고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7~1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증거하고 또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하신 어떠한 증언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장면이 두 번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 오실 때였고 다른 한 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바리새인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게 아니기에 지금 18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 절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게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 밖에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고,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으며,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이지요. 또 한 분 예수님 외에 증인의 자격이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신다’는 문장에 쓰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임에 유

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빛이심을 입증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5 장 36~39 절을 읽으시고 그 해답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리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2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성전 금고 앞에서 하셨으나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인 ‘성전 금고 앞’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곳이 성전 안 여인의 뜰이었고 당시는 초막절 축제 기간이라 밤 동안 ‘빛의 축제’를 위해 아마도 거기에 헌금함을 비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금함을 지키기 위해 그 주위에는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다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21~30)

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27.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 원문해석하기

- (21절) 그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πάλιν αὐτοῖς·)  
나는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ἐγὼ ὑπάγω καὶ ζητήσετε με),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καὶ ἐν τῇ ἁμαρτίᾳ ὑμῶν ἀποθανεῖσθε·)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ἶθαι·)
- (22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그가 자살을 하려는가? (μήτι ἀποκτενεῖ ἑαυτόν·)  
왜냐하면 그가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ὅτι λέγει·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ἶθαι·)
- (23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당신들은 아래로부터 있습니다 (ὑμεῖς ἐκ τῶν κάτω ἐστέ·)  
나는 위로부터 있습니다 (ἐγὼ ἐκ τῶν ἄνω εἰμι·)  
당신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습니다 (ὑμεῖς ἐκ τούτου τοῦ κόσμου ἐστέ·)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 (24절)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ὑμῖν ὅτι ἀποθανεῖσθε ἐν ταῖς ἁμαρτίαις ὑμῶν·)  
만약 당신이 내가 [그]임을 믿지 아니하면 (ἐάν γὰρ μὴ πιστεύσητε ὅτι ἐγὼ εἰμι·)

-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ἀποθανεῖσθε ἐν ταῖς ἁμαρτίαις ὑμῶν.)
- (25절)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당신이 누구입니까? (σὺ τίς εἶ;)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처음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여 온 그가 누구입니까? (τὴν ἀρχὴν ὅτι καὶ λαλῶ ὑμῖν·)
- (26절) 나는 당신들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πολλὰ ἔχω περὶ ὑμῶν λαλεῖν καὶ κρίνειν.)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은 진실되십니다 (ἀλλ' ὁ πέμψας με ἀληθὴς ἐστίν.)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들은 그것을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καὶ γὰρ ἤκουσα παρ' αὐτοῦ ταῦτα λαλῶ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27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말한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οὐκ ἔγνωσαν ὅτι τὸν πατέρα αὐτοῖς ἔλεγεν.)
-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당신들이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 (ὅταν ὑμῶσσητε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 때에 당신들은 내가 그사람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τότε γνώσεσθε ὅτι ἐγὼ εἰμι.)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아무 것도 행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는 것  
 을 [깨달을 것입니다] (καὶ ὅτι ἐμαυτοῦ ποιῶ οὐδέν, ἀλλὰ καθὼς ἐδίδαξέν με ὁ πατήρ ταῦτα λαλῶ.)
- (29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μετ' ἐμοῦ ἐστίν.)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οὐκ ἀφήκεν με μόνον.)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τὰ ἀρεστὰ αὐτῷ ποιῶ πάντοτε.)
- (30절)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Ταῦτα αὐτοῦ λαλοῦντος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실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극도로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좀더 난해한 주제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누구며 자기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2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7장 33~34 절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거라면 그중 하나는 생략해도 될 텐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독자들에게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시키고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 사용된 헬라이어 동사의 시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하

면 “나는 지금 떠나고 있다”(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이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왜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을까요? 혹자는 이 문장이 비록 현재형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그 일이 시간 상으로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니 미래 시제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일부터 그들에게 책잡힐만한 말만 골라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 의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잡을 빌미를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초막절과 이어지는 수전절을 끝으로(10:22)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사실상 마무리하시고 다음 해 유월절 즈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찾는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거라는 의미보다는 계속해서 ‘메시야를 찾을 거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므로 결국은 예수님을 찾는 셈이 되지요. 그들은 그 사실은 모른 채 진짜 메시아는 죽여 버리고 그들이 상상하는 가짜 메시아를 계속해서 찾아 다니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지만(바리새인들은 내세에 도래할 천국을 소망했고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아닌 현세에 세워질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선을 쌓아야 한다거나 이 땅에서의 번영에 삶의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전자를 바리새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사두개인적 신앙입니다. 문제는 두 종파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던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 하셨고 그렇기에 우리도 그런 그들의 잘못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다른 신을 숭배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며 여전히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들이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 풍요의 신과 같은 존재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을 상상하여 나름대로 그분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형상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경배하는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 대다수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어찌서였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너무도 견고했기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더 나아가 실제로 그들이 본 예수님이 결코 자기들이 기대해 온 메시

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당신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섬기고 있나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스스로의 신앙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의 아해 했습니다. 이들은 7 장에서는 예수님이 헬라인 중에 흠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가려는 건가 생각했습니다(7:35). 그런데 이번에는 자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말은 얼핏 보기에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사실 반쯤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내려 놓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10:18 참조). 물론 자신의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은 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자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은 그분 스스로 내려 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일급 기밀을 누설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구절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나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한다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21~30)

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27.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 원문해석하기

- (21절) 그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πάλιν αὐτοῖς·)  
나는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ἐγὼ ὑπάγω καὶ ζητήσετέ με),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καὶ ἐν τῇ ἁμαρτίᾳ ὑμῶν ἀποθανεῖσθε·)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ἶθαι·)
- (22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그가 자살을 하려는가? (μήτι ἀποκτενεῖ ἑαυτόν·)  
왜냐하면 그가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ὅτι λέγει·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ἶθαι·)
- (23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당신들은 아래로부터 있습니다 (ὑμεῖς ἐκ τῶν κάτω ἐστέ·)  
나는 위로부터 있습니다 (ἐγὼ ἐκ τῶν ἄνω εἰμὶ·)  
당신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습니다 (ὑμεῖς ἐκ τούτου τοῦ κόσμου ἐστέ·)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ἐγὼ οὐκ εἰμὶ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 (24절)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ὑμῖν ὅτι ἀποθανεῖσθε ἐν ταῖς ἁμαρτίαις ὑμῶν·)  
만약 당신이 내가 [그]임을 믿지 아니하면 (ἐάν γὰρ μὴ πιστεύσητε ὅτι ἐγὼ εἰμι·)

-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ἀποθανεῖσθε ἐν ταῖς ἁμαρτίαις ὑμῶν.)
- (25절)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당신이 누구입니까? (σὺ τίς εἶ;)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처음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여 온 그가 누구입니까? (τὴν ἀρχὴν ὅτι καὶ λαλῶ ὑμῖν·)
- (26절) 나는 당신들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πολλὰ ἔχω περὶ ὑμῶν λαλεῖν καὶ κρίναι·)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은 진실되십니다 (ἀλλ' ὁ πέμψας με ἀληθὴς ἐστίν·)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들은 그것을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καὶ ὃ ἤκουσα παρ' αὐτοῦ ταῦτα λαλῶ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27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말한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οὐκ ἔγνωσαν ὅτι τὸν πατέρα αὐτοῖς ἔλεγεν·)
-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당신들이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 (ὅταν ὑμῶσητε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 때에 당신들은 내가 그사람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τότε γνώσεσθε ὅτι ἐγὼ εἰμι·)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아무 것도 행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는 것  
 을 [깨달을 것입니다] (καὶ ὅτι ἐμαυτοῦ ποιῶ οὐδέν, ἀλλὰ καθὼς ἐδίδαξέν με ὁ πατήρ ταῦτα λαλῶ·)
- (29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μετ' ἐμοῦ ἐστίν·)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οὐκ ἀφήκέν με μόνον·)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τὰ ἀρεστὰ αὐτῷ ποιῶ πάντοτε·)
- (30절)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Ταῦτα αὐτοῦ λαλοῦντος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존재의 근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위로부터 존재하였으며 이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3 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으로 아마도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 속에 함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7:49~52 참조).] 동일한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요 3:3,5 참조). 또한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6:35, 39, 44, 65 참조).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끌림을 받았다는 뜻으로 그 또한 위로부터 난 자들이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up>3</sup>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sup>4</sup>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sup>5</sup>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sup>6</sup>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3-6).

결국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들 스스로의 결단과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바리새인적 구원관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더욱 더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 가십니다.

“나는 당신들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은 진실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들은 그것을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concerning)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진리’ [헬라어의 ‘알레테이아’(ἀλήθεια)]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를 유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치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알레테이아’는 위, 즉 하늘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구현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고, 참되신 그분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은 당연히 참되며, 예수님은 그 참된 것만을 세상을 향해 외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부터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걸까요? 만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번영에 집착한다면 그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덕과 윤리에 집착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간적 정결과 거룩함에 집착한다면 에센파적 사고 방식에 물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메시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말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버지를 가리켜’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버지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할 말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받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참되시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아직도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적 세계관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처럼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생각한 데다가 출신 배경까지 그들보다 한참 아래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는 커녕 말을 듣는 그 자체가 시간 낭비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요즈음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머릿수의 많고 적음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지하면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듯 보입니다. 단지 다수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인지 아닌지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고 물으면 그냥 누구 따라 어느 교회에 나간다는 말로 얼버무리기도 하지요. 당신은 어떤가요? 무엇으로 당신이 진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십니까?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21~30)

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27.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 원문해석하기

- (21절) 그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πάλιν αὐτοῖς·)  
나는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ἐγὼ ὑπάγω καὶ ζητήσετε με),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καὶ ἐν τῇ ἁμαρτίᾳ ὑμῶν ἀποθανεῖσθε·)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ἶθαι·)
- (22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그가 자살을 하려는가? (μήτι ἀποκτενεῖ ἑαυτόν·)  
왜냐하면 그가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ὅτι λέγει·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ἶθαι·)
- (23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당신들은 아래로부터 있습니다 (ὑμεῖς ἐκ τῶν κάτω ἐστέ·)  
나는 위로부터 있습니다 (ἐγὼ ἐκ τῶν ἄνω εἰμι·)  
당신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습니다 (ὑμεῖς ἐκ τούτου τοῦ κόσμου ἐστέ·)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 (24절)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ὑμῖν ὅτι ἀποθανεῖσθε ἐν ταῖς ἁμαρτίαις ὑμῶν·)  
만약 당신이 내가 [그]임을 믿지 아니하면 (ἐάν γὰρ μὴ πιστεύσητε ὅτι ἐγὼ εἰμι·)

- 당신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ἀποθανεῖσθε ἐν ταῖς ἁμαρτίαις ὑμῶν.)
- (25절)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당신이 누구입니까? (σὺ τίς εἶ;)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처음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여 온 그가 누구입니까? (τὴν ἀρχὴν ὅτι καὶ λαλῶ ὑμῖν·)
- (26절) 나는 당신들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πολλὰ ἔχω περὶ ὑμῶν λαλεῖν καὶ κρίνειν.)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은 진실되십니다 (ἀλλ' ὁ πέμψας με ἀληθὴς ἐστίν·)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들은 그것을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κατὰ ἃ ἤκουσα παρ' αὐτοῦ ταῦτα λαλῶ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27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말한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οὐκ ἔγνωσαν ὅτι τὸν πατέρα αὐτοῖς ἔλεγεν·)
-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당신들이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 (ὅταν ὑμῶσσητε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 때에 당신은 내가 그사람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τότε γνώσεσθε ὅτι ἐγὼ εἰμι·)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아무 것도 행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는 것  
 을 [깨달을 것입니다] (καὶ ὅτι ἐμαυτοῦ ποιῶ οὐδέν, ἀλλὰ καθὼς ἐδίδαξέν με ὁ πατήρ ταῦτα λαλῶ·)
- (29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μετ' ἐμοῦ ἐστίν·)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οὐκ ἀφήκεν με μόνον·)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γὼ τὰ ἀρεστὰ αὐτῷ ποιῶ πάντοτε·)
- (30절)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Ταῦτα αὐτοῦ λαλοῦντος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 당신은 내가 그사람임과 내가 나 스스로 아무 것도 행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자인 우리들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답답해 보입니다. 이야기가 겉돌아도 너무 겉돌기 때문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들 예수님을 제 정신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관점으로 28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사람”이라는 말에서 ‘그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 것도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

하고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도 자신을 직접 계시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방식은 오직 예수님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9 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40).

창세기 1 장을 읽으면 창조 명령을 하신 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떨거나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기도는 도리어 수고하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나 하나 이행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지라”(히 11:6).

사실 한글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에 헬라어 본문을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그[그리스도/하나님]가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이고 보상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χωρίς δὲ πίστεως ἀδύνατον εὐαρεστήσαι· πιστεῦσαι γὰρ δεῖ τὸν προσερχόμενον τῷ θεῷ ὅτι ἔστιν καὶ τοῖς ἐκζητοῦσιν αὐτὸν μισθαποδότης γίνεται.)

여기서 믿음은 인간들의 의지나 신념이나 세계관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분이 보상이었고, 지금도 보상이시며, 앞으로도 보상이십니다.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사건은 또한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자신에게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의무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자녀로서 자격을 박탈당할까 두려워한다면 아마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증거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자유한가요? 정말 안심이 되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